

대전 도시재생의 일번지, 원도심 활성화

대전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2시 옛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도시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은 대전광역시,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금번 심포지엄은 대전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시책을 모색하고, 특히 대전의 근대화유산인 매개로한 '원도심 재생의 다양한 전략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대전 도시재생의 일번지,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권 미래 신성장 동력,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제62차 지역정책포럼 개최



제62차 지역정책포럼이 지난 3월 30일 오전10시 30분 "충청권 미래 신성장 동력,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전일보사 7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정책포럼, 대전일보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충청권 미래 신성장 동력,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하여 안기돈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가 발표하였고,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13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도담도담과 함께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어린이집의 원아 폭행사건 이후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한 관계자는 "잇따르는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CONTENTS

- 01 연구원 소식
- 02 대전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방안
- 04 대전경제동향

발행일 2015. 04. 01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발행인 유재일

발행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85(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대전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방안

책임연구원 장창수

I. 연구 배경과 목적

-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근로역량을 제고시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근로 복지 연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노력으로 자활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평가지표인 탈수급율이 약 10% 정도이며, 자활성공율이 약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면 이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
- 이처럼 자활사업의 성과를 결과적 측면으로서 경제적 성과 파악도 중요하지만, 저소득 참여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자활의욕 고취 등 심리·사회적 변화와 같은 자활사업의 과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과정적 성과 평가와 함께 포커스 그룹인터뷰(FG)를 통하여 지역자활센터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조사결과 분석

1.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1) 자활사업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자활사업 참여 실태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 약 880여 명 중에서 31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성별 분포도는 여성이 75.2%, 남성이 24.8%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도는 40대가 41.7%로 가장 많고, 50대가 39.2%, 60대 이상이 11.1%, 30대가 5.7%, 20대가 2.2%의 순서임.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이 18.5%, 대학교 (전문대 포함) 졸업이 16.2%, 초등학교 졸업이 13.4% 등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위는 조건부수급자가 63.1%, 차상위자가 26.8%, 일반수급자가 10.2%의 순서이며,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의 유형별 분포도는 돌봄사업단이 34.1%, 제조 및 판매사업이 32.5%, 청소사업이 17.2%, 기타(게이트웨이 등)이 12.1%, 주거복지사업이 4.1%의 순서임.
- 사업단에서 근무한 평균 개월 수는 15개월(1년 3개월)이며, 하루 일당은 평균 33,681원이고, 연령은 최소 20세 ~ 최대 65세이며, 평균은 49.2세로 나타남.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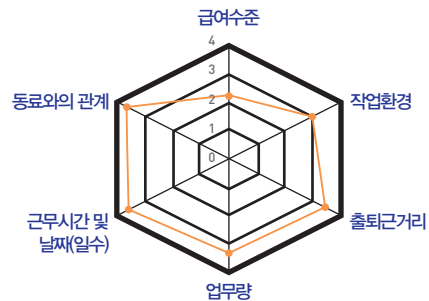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동료와의 관계가 3.62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가 3.54점, 출·퇴근거리가 3.37점, 업무량이 3.27점으로 이론적 평균치인 3.0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급여수준은 2.21점, 작업환경이 2.9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자활사업 만족도

단위 : 빈도(비율)

| 구분 | 평균 (sd)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
| 급여수준 | 2.21 (.94) | 76 (26.6) | 97 (33.9) | 94 (32.9) | 15 (5.2) | 4 (1.4) |
| 작업환경 | 2.98 (.94) | 20 (7.0) | 54 (18.9) | 138 (48.3) | 60 (21.0) | 14 (4.9) |
| 출퇴근거리 | 3.37 (.96) | 14 (4.9) | 21 (7.3) | 131 (45.8) | 86 (30.1) | 34 (11.9) |
| 업무량 | 3.27 (.83) | 10 (3.5) | 19 (6.6) | 163 (57.0) | 73 (25.5) | 21 (7.3) |
| 근무시간 및 날짜(일수) | 3.54 (.86) | 9 (3.1) | 8 (2.8) | 124 (43.4) | 109 (38.1) | 36 (12.6) |
| 동료와의 관계 | 3.62 (.93) | 9 (3.1) | 15 (5.2) | 101 (35.3) | 113 (39.5) | 48 (16.8) |

주 Likert 5점 척도*매우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sd)임



(2) 자활사업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

자아존중감

- 조사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5개월(1년 3개월)로써,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 및 사업종류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사업이 2.79점, 기타(시범사업 등)사업이 2.67점으로 가장 낮았음.

직무능력

-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무능력이 이론적 평균 점수인 3.0점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돌봄사업 참여자들이 3.31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들이 2.89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음.

우울감

- 조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우울감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학력별, 사업단 유형별로, 사업종류별로 유의미 하였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상보다 중졸이하가 우울감이 높았고,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단이 1.75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낮았고, 주거복지사업단이 2.17점으로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 종류별로는 게이트웨이가 가장 높았고, 시장진입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 나타났음.

사회적지지

-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유형별, 사업종류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성(2.98점)보다 여성(3.27점)이 높았으며,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1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2.36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사업종류별로는 시장진입형(3.31점)으로 가장 높고, 게이트웨이(2.56점)가 가장 낮았음. 즉 사업종류에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진입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 변화

-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정서적 및 사회적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연령별, 사업단유형별로 유의미하였음.
- 연령별로는 20~40대(3.15점)보다 50대 이상(3.34점)이 높았으며,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47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 사업(2.6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자립의지

- 조사대상자들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는 이론적 평균 점수인 3.0점을 넘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사업단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성(3.63점)보다 여성(3.87점)이 높았고, 사업단 유형별로는 돌봄사업(3.99점)이 가장 높고, 주거복지사업 (3.44점)이 다소 낮았음.

(3)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독립변수가 자활사업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총 변량(R²)은 21.4%였으며, F값은 10.792(p<.001)로 나타났음.
- 투입된 독립변수 중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과업중요성, 직무 다양성, 직무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울감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자립의지가 자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즉, 우울감이 감소할수록($\beta = -.242$),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 의지의 점수가 증가할수록($\beta = .268$) 자활사업만족도가 증가하였음.

〈표 2〉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베타 | | |
| 자활사업 만족도 | (상수) | 2.814 | .453 | | | 6.208 | .000*** |
| | 우울감 | -.015 | .004 | -.242 | | -3.617 | .000*** |
| | 사회적지지 | .005 | .004 | .081 | | 1.225 | .222 |
| | 자아존중감 | -.092 | .112 | -.058 | | -.829 | .408 |
| | 과업중요성 | -.059 | .046 | -.082 | | -1.275 | .203 |
| | 직무다양성 | -.014 | .044 | -.019 | | -.324 | .746 |
|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자립의지 | 직무자율성 | .083 | .046 | .103 | | 1.790 | .075 |
| | | .245 | .060 | .268 | | 4.080 | .000*** |

R=462, R제곱=0.214, 수정된 R제곱=0.194
F=10.792, 유의확률=.000

2. 자활사업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지자체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약
-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활금의 활용실적 미흡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취약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정서적 자활성과 평가 필요

III.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자활사업의 심리적·정서적 자활성과 평가제도 도입

- 자활사업의 성과를 탈수급율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여 경제적인 자활사업 성과 도출에만 맞추다 보면 심리적 및 정서적 자활의 성과를 간과할 수 있음.
- 경제적 자활의 성과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성과가 심리적·정서적 자활의 성과이므로, 향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자활사업에서 결과적 측면의 경제적 자활보다 과정적 측면인 심리적·정서적 자활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자활사업 만족도 제고

-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감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자립의지가 자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즉, 우울감이 감소할수록,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가 증가할수록 자활사업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자활사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립의지를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대표적인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하면 이직율이 높고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지역자활센터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인건비와 비교하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임금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임금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고용복지연계사업인 자활사업은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소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야 함.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현재 전국 시·군·구 지역단위로 자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역할과 근거가 미흡함.
-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자활사업 수행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4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 등 9개 지역이 자활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사업 자금 융자 및 우선구매,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규정 할 필요가 있음.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건설과 수출이 양호하지만 생산이 부진하고 고용상황도 악화된 가운데 소비도 혼조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고 고용도 양호한 가운데 대외거래도 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저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4년 3월부터 반등세를 보인 이후 9월까지 회복국면을 보였으나 10월부터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설 이동, 연말 밀어내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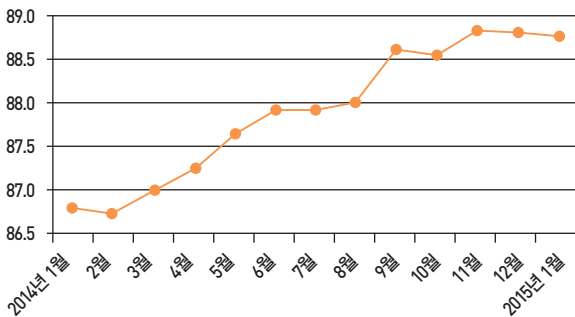
영향 등 일시적 요인으로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 자산시장 회복세 등 긍정적 조짐도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5년 대전경제 정책방향」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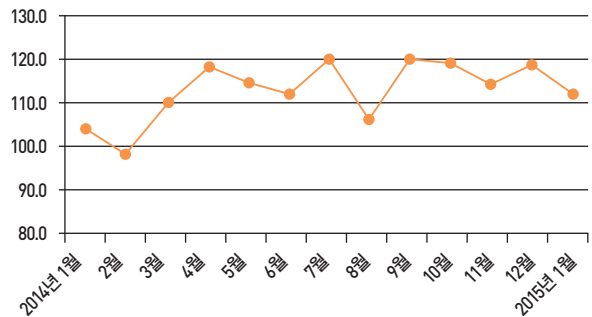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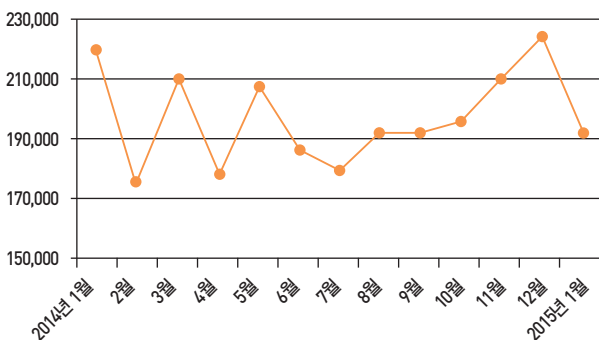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